

일주문

지역 어르신 효도 잔치
불암사 회자 일면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별내동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불암사 경내서 5월 12일 개최했다.

클래식 콘서트 마련
평창 월정사 주지 정명 스님은 5월 15일 오후 7시 대법륜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유예주와 뉴클친구들 클래식 콘서트 2015'를 개최한다. (033)245-6600

초의 대선사 108 헌다례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은 5월 22일 쌍계사 팔영루 및 진감선사대공탑비 앞 등 경내에서 '제13회 초의 대선사 108 헌다례'를 진행한다. (055)883-1901

정오의 음악회 진행
서운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잔디마당에서 봉은사국악합주단과 함께하는 목요상설 정오음악회를 진행한다. (02)3218-4866

고양 연등축제 축하공연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오 스님은 5월 20일 오후 5시 20분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제13회 2015 고양 연등축제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02)381-7970-1

서산서 방생법회 열어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5월 10일 충남 서산 일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원효보살 추모대재 봉행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5월 16일 오전 11시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를 연다.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선출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에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5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이사장에 원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광학원 당연직 이사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암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광학원은 광복 후 불교교육을 통한 대중교과와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백양사 만암 스님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광주 전남지역 5대 본사 재산출연과 협의를 통해 1946년에 설립된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 명문사학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젊은 불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 할 터”

부산공무원불자聯 이종원 회장 취임

“부산은 불교 신행이 다른 도시에 비해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불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불자가 많은 부산에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공무원불자회를 중심으로 젊은 불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산공무원불자자연합회 제 5대 회장으로 부산시의회 이종원 사무처장(57·불자신도회연합회 회장·사진)이 취임했다. 부산공무원불자자연합회는 4월 30일 안국선원 교육관(조계종 불교회관)에서 이종원 신임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부산 공무원 불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종원 회장은 “불자 집안에서 자랐고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불련 활동을 해왔다. 늘 이웃과 함께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거울삼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신임회원 유치를 위해 기존의 회장단과 도반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시군구의 회원들을 만나 오찬자리를 갖고 회원 유치에 대한 방안을



을 거울삼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신임회원 유치를 위해 기존의 회장단과 도반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시군구의 회원들을 만나 오찬자리를 갖고 회원 유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5월 13일 남구·수영구·영도구의 핵심간부를 만나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면서 젊은 회원 유치에 대한 1차적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 간부들과도 오찬 자리를 마련해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6월 송광사에서 열리는 전국 공불련 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9월경에는 조계종 총림선원 봉암사 참배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봉암사 조직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는 “업무 관련 봉사모임이 있어 따로 봉사 모임을 갖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탓에 공불련이 간헐적으로 봉사를 해왔던 점은 아쉬웠다.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큰 덕목인 만큼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청빈의 삶 기억...수행의 거울 삼고자”

향적 스님, 파리서 출판 문화행사 가져

향적 스님의 저서 불어 번역본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L'Eveil n'a pas de frontieres)의 출판 기념관련 다양한 문화행사가 파리 현지에서 열렸다. 향적 스님은 4월 11일~19일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시작으로, 파리 길상사와 주불 한국 문화원, 베에호 까비르 수도원 등에서 강연을 가졌다. 특히, 마지막 일정은 책의 배경이 된 베에호 까비르 수도원(브르고뉴 지방에 위치)에서 4월 18일~19일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향

적 스님은 번역자 아니 부루느통 교수(파리 7대학 한국학과),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과 함께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출판 기념 행사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40여 수사들이 대상으로 가진 특별 강연회에서 향적 스님은 “낯선 동양의 불교 수도자를 가까이 맞이해 주신 수도원의 수사님들께 죽기 전에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정리했다”며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당시 수도원에서 체류하면서 배운 수사님들의 청빈의 삶을 기억하며



본인도 불교 수행에 거울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2009년 국내에서 소개된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은 스님이 1989년 약 1년여간 프랑스의 가톨릭 수도원 베에호 까비르에 머물면서 불교 수행자로서 가톨릭의 수행 방식과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면서 느낀 단상들을 기술한 저서다. 정혜숙 기자

목탁 스님, 미얀마 상원의장 면담

5월 2일 삼청각 연회실에서 상호교류



한국을 방문중인 미얀마 상원의원 킨 아웅 민 일행이 미얀마 문화원 목탁스님을 만나 상호 교류에 대해 환담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4월 29일 내한한 미얀마 상원의장 킨 아웅 민 일행은 방한 일정의 하나로 미얀마문화원 목탁스님을 만나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국회의원 미얀마 친선 협회장 우 쉐이 의원과 소 르윈 주한 미얀마대사 등 미얀마 주요인사 20여명과 목탁 스님, 붓다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화엄전 삼존불 탱화 점안



고운사(주지 호성)는 5월 6일 화엄전 삼존불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송암 혜승 대종사, 동당 원조 각성 대종사, 주지 호성 스님, 김재원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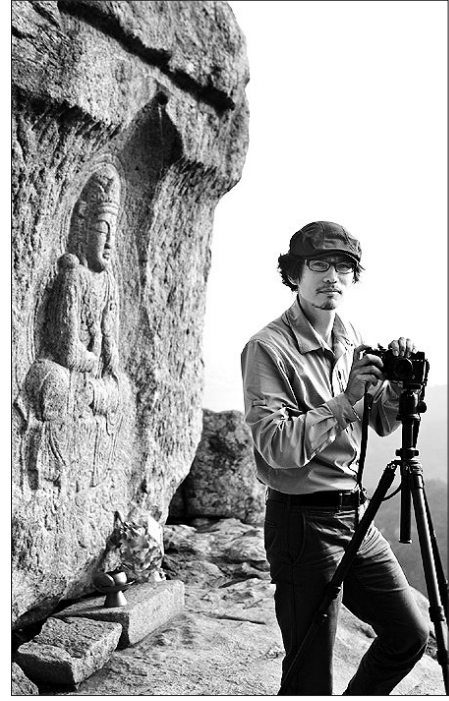
청소년 포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수원시가 건립하고 조계종 영주사 수원포교당이 위탁운영 중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학수)은 ‘청소년 해우소-심(心)심(衛)클럽’ 개강식을 지난 5월 2일에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포래 상담자 양성 과정이다. 정혜숙 기자

“봉축 앞두고 아름다운 절집 풍경 공개”

불교사진작가 하지권 개인전...5월 13일부터 갤러리 브레송에서



늘 거기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절집 풍경들이 사진에 담겨 공개된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하지권 작가가 5월 13일~23일 갤러리 브레송에서 개인전 ‘절집’을 연다. 작가는 “절집의 문은 늘 열려 있지만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카메라를 메고 절집 문지방을 넘어 다닌 지 14년이다. 그간의 작품 중 19점의 흑백 사진을 대중에 선보인다”고 전했다. 선암사에 매화가 한창이던 봄날, 작가는 촬영에 여념이 없다. 스님도 꽃샘매경에 더 붙어 빠졌다. 문득 사진가의 눈에 동백나무에 가려져 하반신만 드러난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수행자가 꽃에 가려져 실체가 없어지고 고혹한 향기만 남은 듯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은 작가는 직관적으로 셔터를 누른다. 사진 너머의 세상, 즉 불법과 수행자의 정신이 이 현실세상과 만나는 찰나의 순간이 한 컷의 사진으로 남았다. 눈 오는 날 범부사 풍경도 시선을 끈다. 눈 쌓인 보리수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로 길게 줄지어 걸어가느 스님들의 모습은 수행자의 멈추지 않는 정진을 보여주는 듯하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 풍경은 2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처럼 아름답다. (02)2269-2613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On-Heat Relief'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back pain, joint pain,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or. The text emphasizes its effectiveness and safety.